

신행수기 당선작 (현대불교 사장상)

발없는 발로 손없는 손으로 ② · 풀

윤순복 <경북 영주시 휴천3동>

88년 올림픽이 있던 해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으로 전근을 오게 되었다. 시골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나와 아이들, 남편은 처음엔 많이 힘들어 했다. 강원도에서 경상도로 왔기에 말부터 쉽게 알아들을 수 없었다. 지방마다 특색이 달랐던 탓에 외롭기도 많이 외로웠다. 지금은 10년을 살고 있기에 같은 도반들도 만나고 동네 아주머니들과도 친숙해졌지만, 그때 외로움에 혼자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곤 했다.

사춘기로 접어들면 큰애는 더더욱 적응을 못했다. 또래보다 항상 더 예민하고 남다른 사고방식이 있던 딸애를 보며 난 늘 "내가 무슨 연애하다 싶었냐" "넌 잘생긴 애가 아니냐" 라고 말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그애 나름대로의 명성일 수도 있었고 어두운 집안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자기 나름의 몸부림이었는지도 몰랐다.

이사를 와서도 어려운 것은 딱한가 지에서 일을 해야 했다. 그러나 근처 공장에선 내가 약해보인다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다. 오대산에 살 때에 제방공사에 나가 그 큰 물들도 나르고 산꼭대기까지 벽돌을 나르기도 했는데 우선은 몸이 약해보인다는 이유로 때론 거절당했다. 그러다 우연히 처녀 시절 친구를 만났는데 방직공장을 경영한다기에 체면불구하고 부탁을 해서 취직이 되었다.

2교대로 일하는 곳이어서 밤에 일할

때 배가 몹시 고왔다. 리면 살 돈도 아끼던 때였다. 건빵이라도 생길 때면 그걸 가방에 넣고 만지고 또 만지기만 하기를 여러 날, 더 힘들고 배고플 때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말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

그후로 거처간 많은 곳들, 성남공장, 푸대차루 만드는 곳, 시그릿공장... 지금 다니는 경양식 주방까지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렀다. 아이들은, 특히 큰애는 더욱 고립적으로 되어가는 듯했다. 큰애는 대학입시에 떨어지고 큰 방향을 했었다.

마음 공부와의 인연도 그때에 닿았

마음공부 인연 방향하던 큰딸 출가 결심 나는 암을 이겼고 남편도 유순해졌다

다. 하루는 놀고 먹는 딸애를 매우 거슬러 했던 남편이 모자를 쓰고 다닌다는 이유로 아이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서는 코베가 휘돌록 때렸다. 그후로 집을 나가기 시작한 딸. 어느 곳에서 밥을 먹는지, 남자에게 안고 하니 얼마로서 걱정은 아무 말할 수도 없었다. 집을 나간후 한참만에 돌아온 딸은 큰 빗을 지고 왔다. 카드빚이 여기저기 빌려온 돈을 남편 모르게 갈아나기야 했기에 생활은 더욱 힘들



그림 · 문병성

었다. 어느 때문이 그 사실을 안 남편은 매일 주던 생활비 20만원도 주지 않았다. "잘 키운 내년 딸 잘난 나가 책임져"라고 한마디 한 후로 말이다. 큰 애들은 또 그 틈에서 크느라 저희들 나름대로 아픔이 있었지만 별 무리없이 지라 덤마를 덜 고생하게 해주었다. 둘째가 대학을 가던 해 유난히 술주사가 심하던 남편은 아이들이 오지 않은 어느날 창문에(아파트 5층) 날 반쯤 넘긴 채 죽어있었다고 했다. 살려달라고만. 그저 살려달라고만 빌었다. 다 내가 잘못한 것이니 용서하려고 말이다. 죽는 건 겁나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길을 밟 때문에 그냥 죽을 순 없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한마음 주인공을 절실히 관하게 된 계기가 생겼다. 내가 자궁암에 걸린 것이다. 유전적으로 생긴 자궁암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웠기에 그 자리에 모든 걸 맡길 수 있었다. 아

남편이나 나나 모두가 한줄이고 만물만생이 나와 둘 아님을 알았기에 이젠 감사할뿐...

주시없이 잠자리에 든다. 하루는 창선 중에 동해바다의 바닷물이 하늘로 몇번이나 솟아올라 오르는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사어머니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이제는 내가 스승으로 모시는 내 남편을 낳아주시 분이기에 말이다. 그분이나 남편이나 나나 우리 모두는 한줄이기에, 한마음이라 생각한다.

더욱 날 정진하게 도와준 또 하나의 스승인 큰딸애가 작년 겨울부터 착실히 마음공부를 하더니 지난 달에는 큰스님 친견 때 하락을 받고 주자스님의 도움을 받아 부처님의 제자로, 큰스님의 제자로 가게 되었다. 세상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형상만 우리러지 말고 내 안의 그 부처를 꼭 이루기를 바란다.

이제 후식이 지나면 큰애는 절로 간다. 부처님과 내가, 큰 여러 스님들과도 이 우주의 모든 만물만생이 다 나와 둘 아님을 알았기에 큰애를 슬픔 없이 보낼 수 있다. 사실 보내고 남고 할 것도 없다. 나 역시 영원히 부처님 법 안에서 열심히 관하여 살테니까.

힘이면 손가락 하나 들 수 없어도, 몸이 그대로 가라앉을 것 같은데도 남편의 그 삼한 면박을 받느니 일하다 죽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다.

영원한 진리인 불법을, 그토록 심오한 이 법을 그때 난 너무나 생생히 체험할 수 있었다. 열심히 남편도 관하고 큰딸도 관하고 우리가족 한마음 되기를 열심히 관했다. 한 8개월을 그렇게 병안 한번 가보지 않고 오직 내 마음의 자성부처인 한마음 주인공에게 맡겼다. 날 공부 시키고, 내게 관을 가르쳐주시 큰스님 덕으로 생각한다. 눈물겹게도 눈물겹게도 병이 나아진 것이다. 이 여지 기복이라고 하겠는가, 나 스스로 그 큰 법의 맛을 봤는데 말이다. 그 후로는 남편도 눈에 띄게 유순해져 가고 어떤 술이 취해도 한마디

PCS 016

우수통화품질 입증기념 "016 Free & Free 대축제"

1,000분 무료 통화에 최신 PCS폰까지!

"우와! 최신PCS폰을 준다고?"



"016 통화품질 월런지" 및 언론을 통해 통화품질 입증받은 정보전화 016 - 추천한 고객과 추천받은 고객에게 총 1,000분의 무료통화를 드립니다. 또한 신용카드요금납부 등의 조건으로 신규가입하시면, 최신 PCS폰을 제공해 드립니다. 특별한 016의 Free & Free 행운 - 놓치지 마세요!

Free 1 최대 1,000분 무료통화 대축제

- 행사기간 : 1999년 1월 22일 ~ 2월 20일(추천은 2월 19일까지 가능)
- 행사대상
 - 추천고객 : 1999년 1월 21일 현재, 정보전화 016고객 (사용정지중인 고객 제외)
 - 추천대상고객 : 추천고객으로부터 가입추천을 받아 행사기간중 신규가입한 고객 (중고단말기, 프리콜/생탈본 가입고객 제외)
- 행사내용
 - 추천받은 신규고객이 행사기간내에 정보전화 016에 신규가입한 경우 무료통화 160분, 추천고객에게는 신규고객 1명당 무료통화 100분씩 (최대 200분)을 드립니다. (9명까지 추천가능)
 - 추천받은 고객은 추천일 다음날로부터 행사종료일 이내에 가입하셔야 무료통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천당일 가입시 무료통화 혜택 없음)
 - 신규가입하시기 전에 본인이 추천통화되었는지 여부와 신규가입 직후 무료통화혜택이 부여되었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추천/추천여부확인 : 02)3402-0600 또는 한국통신프리텔 전국 대리점
 - 추천기간 : 09:00 ~ 22:00 공휴일도 가능
 - 이미 정보전화 016에 가입한 고객여러의 추천은 행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Free 2 최신 PCS폰을 패키지로 제공

- 행사기간 내 아래의 3가지 조건으로 가입하시면, 최신 PCS폰을 패키지로 드립니다.
- 행사기간 : 1999년 2월 1일~2월 28일
- 가입조건 :
 - 요금납부방법 : 신용카드 또는 KT합심장구
 - 요금서비스 : 프리200이상 (프리300, 프리400포함)
 - 정보서비스 : 1개이상 가입
 - 개통일로부터 6개월간 명의변경 및 일시정지 금지
- (최신PCS 제공행사문의 : 090-016-0000 또는 한국통신프리텔 전국대리점)
- 제공용 PCS폰



"1000분! 다른데 보다 400분이나 더 많네~"



016 요금세상

구분	기본요금(월)	통화료(원/10초)						비고	
		피라미스콜	한인통화	평상	한인	심야	심야		
헤이스	19,500	15	14	13	16	14	13	주간에 많이 이용하는 경우	
표준요금	16,500	17	14	10	19	15	10	차음 이용하시거나 하루2~3통화 이용시	
프리200	36,000	16	13	10	16	14	10	기본료 36,000에 200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프리300	45,000	15	12	10	17	13	10	기본료 45,000에 300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프리400	53,000	11	10	9	15	12	9	기본료 53,000에 400분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라이트	13,000	34	25	18	35	26	18	하루1통화 이하 이용시	
스팩설	13,000	35	8	8	36	9	9	최근 후나 주장에 많이 이용하는 경우	
비지	5~20회선	16,500	15	13	9	17	14	10	<p>평일</p> <p>공휴일</p>
지니	21~50회선	16,500	14	12	9	16	13	10	
니스	51~100회선	16,500	13	12	9	15	13	9	
스펙	101회선	16,500	12	11	9	14	12	9	

신청방법
 ▶ 서울 : 02)732-1522, 737-8881로 전화주시면
 ▶ 신분확인후 즉시 개통
 ▶ 택배로 가정까지 배달됩니다.

전화 : 02) 732-1522, 737-8881
 팩스 : 02) 737-0697
 우편번호 110-170
 주소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PCS 016 담당자말